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29회)

제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제 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一. 신앙촌(信仰村)이란?
 二. 첫째신앙촌 · 소사신앙촌 · 첫째울타리

一. 信仰村(신앙촌)이란?

1) 박태선 영모님이 이룩한 신앙공동체 마을

1956년부터 전도관이란 이름으로 새로 출발한 박태선님의 전도관은 우후죽순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다. 신도들이 몰릴듯이 계속 모여들었다. 영모님은 일요일 낮에 예배에 이만제단부터 서신 후 바로 지방으로 순회를 시작하시어 토요일 밤중이 되어서야 서울로 돌아오시곤 했다.

전도관 전도사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처음에는 세상물정도 모르는 어린 20대들을 전도사로 파송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들 했지만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실력들을 발휘했다. 신학 공부도 못한 철부지들을 전도사로 내보낸다고 기성교회에서 비웃었지만 영모님이 안찰을 해주시고 믿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말씀 한 마디로 그들은 앞만 보고 돌진하는 탄환같은 존재들이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목사들과 토론회를 하여 병어리가 되게 하고 영모님이 축복한 생수를 들고 다니면서 불치의 병자를 고치니 전도는 식은 죽 먹기로 쉬웠다. 전국 전도관은 날로 곡식같이 부흥이 되었다. 기성교회에서 전도관 박장로가 신학 공부도 못한 젊은 철없는 것들을 전도사로 내보낸다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기성교회 목사들은 인학(人學)을 배운 것이지 신학(神學)을 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받아 쳐버렸다. 이렇듯 타오르는 불길같이 전도관의

교세가 날로날로 하늘을 찌를 듯할 때였다. 영모님은 돌연 신앙인들끼리 모여 살아야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신앙공동체 마을을 건설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때에 영모님의 설명은 불 붙은 숯불을 따로따로 놓아두면 그 숯불은 생 숯덩이의 기운에 막혀서 그냥 꺼져 버린다. 그러나 불 붙은 숯불덩어리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서로 열이 확산되면서 엄청난 불덩어리로 피어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치로 전도관에서 불이 붙은 식구들을 뿔어서 신앙공동체인 울타리에다 모아놓으면 불이 붙은 숯덩이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그 불길 이 엄청나게 타올라서 다같이 주님을 맞을 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을 하셨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아무리 불이 붙었을지라도 생숯덩이와 같은 세상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므로 그 불길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생통이와 같은 세상사람들의 기운에 못 이겨 꺼져버리곤 한다고 설명하셨다. 그러나 울타리에 들어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설명하시는 것이었다.

2) 처음에는 ‘울타리’ 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때는 1957년. 영모님은 ‘울타리’를 건설한다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였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 많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뿔아 들여 보낸다고 하였다. 울타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빨리 이루어져 144000명의 왕의 반열에 들게 된다고 하였다(목14장). 그 안에서는 마시는 물도 강하게 축복한 생수로 마시게 되고, 밥도 축복을 한 쌀로 밥을 지어 먹게 되고, 목욕도 축복한 생수로 목욕을 하

게 된다고 하셨다. 또 그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신 동산이기 때문에 마시는 공기까지도 충만한 은혜로 화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안 이루어지려야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곳이라고 설명하셨다. 그러나 전도관 신도들 중 이 말을 듣고 울타리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영모님의 생수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도관 사람들이 온통 생수로

치 못하게 하는 하늘의 역사임이 실감났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니...”(사 17:11)”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3) ‘울타리’를 신앙촌으로 고쳐 불렀다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님의 역사는 전체가 성경에 예언된 내용 그대로 이루어져 그분을 따르는 교인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다. 박 장로님이 건설한 신앙촌은 천기인 삼수(三數)를 완성하는 상징이었던 것이다.

먹고 마시고 목욕도 하고, 그 안의 모든 공기도 은혜의 창파로 가득하게 된 곳이라고 설명을 하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영광 속에서 생활할 것 울타리를 교대하면서 마음에 큰 흥분을 느끼게 되었다.

이 ‘울타리’라는 명칭은 처음 듣는 매우 생소한 말이었다. 그 동안 영모님을 통해서 생소한 성경적인 용어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놀라와 했지만 이제 또 이 ‘울타리’라는 생소한 명칭으로 다시 한 번 놀라고 있었다. 이 울타리라는 명칭도 성경에 예언된 명칭이었다. 박태선 영모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성경 속에 예언된 내용으로, 영모님은 그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직접 이루고 계시는 주인공인 것이다. 그러나 영모님이 하시는 역사는 참으로 놀라움을 금

‘울타리’ 건설이 대부분 마무리 되어 전국에서 뿔어난 신도들이 입주한 후부터 울타리라는 명칭은 신앙촌(信仰村)으로 바뀌었다. 신앙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울타리란 명칭을 신앙촌이란 명칭으로 바꾸었는데 그 바꾼 신앙촌이란 명칭이 450여 년 전 남사고 선생의 예언서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예언된 원문을 적어 소개하겠다.

一心合力全家族이 弓乙村을 찾아보소
 일심합력전가족 공을촌

牛欄之村見不牛로 人言一大尺八村을
 우성지촌견불우 인언일대 척팔촌

寒心하다 草露人生 弓乙村을
 한심 초로인생 공을촌

모르거든 呼天村을 先尋後에
 호천촌 선심후

呼母村을 更問하소.....出將論篇
 호모촌 갱문 출장론편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 전가족이 정도령님이 계시는 마을을 찾아보시오. 신천촌(信天村)에 가서 보니 소울음소리가 나는데 소는 보이지가 않는구나. 한심하다 초로같은 인생들이, 정도령님이 계시는 마을을 모르겠거든 하나님을 찾는 마을을 먼저 찾은 후에 엄마를 부르는 마을을 다시 물어 찾아보시오.”

주해: 人言一大尺八村(인언일대척팔촌)은 파자로 된 예언인데 人言(인언)을 조합하면 믿을 신(信)자가 되고, 一大(일대)를 조합하면 하늘 천(天)자가 되고, 尺八村(척팔촌)은 十八寸이니 마을 촌(村)자가 된다.(일척(一尺)은 십촌(十寸))

고로 인언일대척팔촌은 신천촌(信天村)이 된다. 하늘 천(天)자는 우리러블 양(仰)자와 같은 뜻이므로 신앙촌(信仰村)과 같은 뜻이 된다.

이와 같이 이미 450년 전에 신앙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공동체를 건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에 감탄을 금할수가 없다.

3) 신앙촌은 삼수(三數)의 신앙촌을 건설하게 된다

앞으로 영모님은 삼수의 신앙촌을 건설하시게 되는데 왜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수를 채우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삼수의 신앙촌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무엇 때문에 건설되는 것인가를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은 궁금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 나가 는 모습을 지켜보아 주기를 바란다. 영모님의 사명은 이 신앙촌 건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명을 구체적으로 옮겨 나가시게 되는 것이다.

누누이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완성의 역사는 삼수의 하나님이 출현하여 삼신일체일인출된 분을 통하여 인류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끝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박태선 영모님은 그와 같은 일을 진행시킬 이기신 하나님을 찾아 키워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한 분 한 분을 찾아 세우는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신앙촌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1신앙촌인 소사신앙촌 건설은 첫번째 이기신 하나님인 박태선 하나님의 출현을 상징하는 신앙촌 건설이다.

다음 제2신앙촌을 건설하는데 그 제2신앙촌의 건설은 두번째 승리하신 하나님의 출현이 성공을 거두신 것을 상징으로 건설하신 것이다.

또 제3신앙촌의 건설은 세번째 승리하신 하나님의 성공적인 출현을 상징하는 건설인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세번째 하나님에게 세 분 하나님이 합일 일인출되어 완성의 구세주로 출현을 하시기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성공을 거두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夫唯不肖 故能大

부유불초 고능대

대저 사라지지 않는다면 고로 능히 위대할 것이다

도덕경 67장 해설

도(道)는 곧 사람의 길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래서 곧 하늘이고 우주이다. 그래서 참 도인은 하늘과 우주와 하나된 자이다. 사랑을 바로 알면, 도를 알게 되고, 신을 알게 되고, 우주의 실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또한 인간의 본분과 윤리 도덕 삶을 알게 된다. 사랑이 진실됨이요, 선함이요, 아름다움이다. 사랑이 지혜이자 무한한 힘이요 권능인 것이다. 우주의 운행 질서의 배후의 근원적인 생명(에너지), 이것이 또한 창조주요 절대자요 신인 것이다. 세상에서 사랑사랑 말할 하고 있지만, 사랑의 실체를 도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

사랑을 바로 말하자면, 곧 희생이다. 신이 위대하고 부모가 위대하고 의사(義士)가 위대한 것은 바로

희생을 본말(本末)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신에게서 희생이 빠지고, 부모에게서 희생이 빠지고, 의사에게서 희생이 빠지면 이미 그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린다. 신의 사랑은 인간과 우주 만물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것이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어떻게든 잘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요, 의사의 사랑은 어떻게든 국가와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한결같은 마음뿐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위대한 힘과 능력을 드러내 보인다. 사랑이 전장에서 부하를 다스리는 장수에게 있다 하자. 그 장수가 부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가늠하면, 그 부하는 그 장수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

우게 될 것이고, 그리

하여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또 사랑이 그 가정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그 가정은 만사가亨通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또 그 사랑이 정치 지도자의 마음에 가득하면 그 백성을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보살피게 되어 그 사회가 화합되고 안정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된다. 이를 보아 참 사랑은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 뿐이지 뭘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인 것이다. 이러한 사랑이 있으면, 한 가정이 화목하고, 한 사회가 평안하고, 한 국가가 안정하고, 한 세계가 평화의 세계가 될 것이다.

이를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다스려지는 세상이 되어야만 인류가 바라는 이상 세계가 불연간 에

펼쳐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 외의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고 유한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산중에서나 세속에 서나 수도생활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이 사랑의 본질을 알고 터득하여, 그 사랑을 확장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인류의 근원적인 불행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인류가 그토록 염원하던 이상향(지상천국)이 건설될 것이 분명하다. 사랑이 있으면 천만 적군이 있어도 두렵지 않고, 아무리 무섭고 험난한 지경에 있다 해도 두렵지 않음은 존재의 근원의 사랑과 인간 안에

있는 사랑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보호해 주시는 큰 사랑이 그

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영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영원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다. 우리가 노자의 도를 공부하기 위함도 바로 이 위대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영원한 사랑을 체득하여 널리 확장하기 위함인 것이다.

天下皆謂我大(천하개위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다고 말한다

大而不肖(대이불초): 위대함이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夫唯不肖 故能大(부유불초 고능대): 대저 사라지지 않는다면 고로 능히 위대할 것이다

若肖 久矣其細也夫(약초 구의기세야부): 만약 사라지는 것이라면 오래된 것이라도 그것은 하찮은 것이 되오

我恒有三寶 持而寶之(아항유삼보 지이보지): 나에게는 항상 세 가지 보배가 있으니 그것을 보배처럼 지니고 있오

一曰慈 二曰檢(일왈자 이왈검):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살림이요

三曰不敢爲天下先(삼왈불감위천하선): 셋째는 감히 세상에 나서지 않는 것이오

夫慈 故能勇(부자 고능용): 대저 사랑은 능히 용기를 북돋을 수 있고

檢 故能廣(검 고능광): 살림은 능히 넓게 펼칠 수 있고

不敢爲天下先(불감위천하선): 감히 세상에 나서지 않음은

故能爲成器長(고능위성기장): 고로 능히 완성의 경지로 길이 이루지기 위함이다

今舍其慈 且勇(금사기자 차용): 이제 그 사랑을 버리고 만일 용기만 있고

舍其檢 且廣(사기검 차광): 이제 그 살림을 버리고 만일 넓게 펼치려 한다

則死矣(즉사의): 곧 죽음이오

夫慈 以戰則勝(부자 이전칙승): 대저 사랑은 전쟁에서도 곧 승리하고

以守則固(이수칙고): 지키고 있으면 곧 견고하고

天將建之(천장건지): 하늘(하나님)이 문득 지켜서

如以慈垣之(여이자원지): 사랑으로써 담(성벽의 가호)을 에워싸는 것과 같소이다.*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